이인호 목사는

건국대 영문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현재 아나톨레 공동대표, 수지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가 있다.

메마른 신도시 틈바구니에 꽃핀
생명력 있는 교회

수지사랑의교회는 2003년 5월 1일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남성을 돕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 교회 같은 가정,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4대 창립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 그 사이 본당의 좌석은 250석에서 450석으로 늘었고, 현재 주일 낮 예배에 1,300여 명의 장년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2004년 7월에 돼지갈비집이었던 현재의 예배처소를 임대해 옮겨왔으나 1층이 190평, 2층은 1층의 절반, 합해서 280평 정도의 건물에 불과한 상황이다. 300미터 떨어진 곳에 120평 정도 공간을 임대해 주일학교가 모이고 있고, 예배당 근처에 2층을 임대해서 교역자실과 교육실로 사용하는 것이 공간의 전부인 수지사랑의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매주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출석하고 있다.

수지사랑의교회는 '5만 시간 비전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특별새벽부흥회에는 어른들만 800명 이상, 아이들까지 하면 매일 1천여 명이 넘게 출석했다. 특별새벽부흥회 기간 동안 직장이 위치한 원주에서 수지까지 매일 출퇴근하며 특새에 참석했던 성도도 있다.

이런 전투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배당 주변에 천막을 쳐서 식당으로 활용하고, 컨테이너 시설에서 시니어 남자 성도들이 모이는 등 주차도, 교육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교회가 어떻게 개척 8년여 만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가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을 수지사랑의교회 이인호 목사의 지난 8년간의 제자훈련 목회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도록 하자.

개척 교회는 개척 교회일 뿐

선뜻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수지사랑의교회가 개척된 후 곧바로 시작된 제자훈련은 쉽게 정착된 것만은 아니었다. 수지사랑의교회도 개척 교회이기는 매 한가지였던 것이다. 이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8년간 사역하면서 제자훈련을 맡아 섬길 때는, 성도들이 대부분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이 목회철학에 100% 동감하고 있어서 사랑의교회 사역은 그냥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개척 교회에서는 훈련받으면서 동시에 교사도 하고, 식당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섬겨야 하는 상황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성도들을 대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 초기에는 훈련받을 만한 자원이 없어서 제자훈련 이후에 순장으로 파송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도 훈련시키고 파송한 경우도 있었다. 검증도 안 된 성도였지만, 자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목회자만큼만 변하는 제자훈련

그러나 개척한 지 8년이 흐른 현재, 제1기 여제자반 중에 여전히 남아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성도는 두 사람밖에 없다. 순차적으로 교회를 떠난 것이다. 그만큼 개척 초기에는 담임목회자와 같은 스피릿을 공유하고, 사역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 훈련시키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부목사 때는 훈련은 제가 맡아 했을지 모르지만, 옥한흠 목사님이라는 거장 아래서 영향을 받아 양육된 사람들을 제

가 훈련시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제가 부족해도 훈련생들이 큰 사람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는 나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만큼 전도하고, 내 열정만큼 열정을 갖고, 내가 꿈을 갖는 만큼 꿈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프로그램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부목사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 가르치고, 체크하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내가 끊임없이 한계를 돌파해서 더 나은, 더 겸손한, 더 솔직한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인호 목사는 개척 초기 1주일 내내 여제자반 2개, 남제자반 1개, 남여 사역반 각각 한 개씩을 맡아 훈련시켰다. 심방도 다니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온 제자훈련은 현재 남자는 8기째, 여자는 13기째 훈련이 진행 중이다.

제자훈련은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

'수지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현재 수지사랑의교회는 순장될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 제자훈련 과정에 선발하고 있다. 아무리 성도가 제자훈련 받고 싶어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담임목사에게 훈련받았는데도 파송되지 않으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반을 담당한 부목사들이 제자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적으로나 인격적, 영적인 면에서 점검해보고, 순장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한다. 더불어 순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체 안에서도 검증된 사람을 훈련생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자질을 갖춘 성도들은 이 목사의 손에서 강력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정련된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자훈련 시킬 때는 훈련 시간 동안만, 훈련 교재 안에서만의 모임이었지만, 담임목사가 되고 나서 감당하는 훈련은 총체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배 참석, 기도생활, 전도, 봉사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실천하게 하면서 말씀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제자훈련이 된 것이다. 그러니 열악한 교회 공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요동 없이 성장과 성숙의 고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하지 않으면 교회의 어떤 리더십도 주지 않으니 담임목사의 스피릿 안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온 것이다.

2010년 6월에 제7기 남자 제자훈련을 수료한 김영천 집사는 자신이 받은 제자훈련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어렵게 결정한 제자훈련인지라 시작부터 힘들었습니다. 서로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같은 뜻을 가지고 간다는 것, 또 세상에 물들어 살던 사람이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온전히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회사생활로 찌들어 있던 저에게 너무도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한 달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제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 중심에 계시게 되었고,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제4기 시니어 제자훈련을 수료한 이형일 집사도 제자훈련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훈련을 하면서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제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래 신문 한 장도 읽기가 어려웠던 판에,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만 젊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뒤로 한 채 열심히 돋보기를 닦아가며 침침해지는 눈을 곤두세우고 아래로 깔고 비벼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암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외우고 외워도 외어지지 않는 암송, 24시간을 소리내어 외우려고 하다 보니 편도선이 부어 이비인후과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밀려갔다 밀려오는 파도의 포말처럼 사라지는 듯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가 어느덧 나의 갈급했던 심령을 적셔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는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에 지는 낙조의 아름다움과 같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인생 말년이 소망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듯합니다."

제5기 사역훈련을 수료한 송윤정 집사는 사역훈련을 마치며 이렇게 간증한다.

"남편을 다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과 남편의 순종함이 사역훈련을 받는 내내 제겐 간증거리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감사함으로 첫 번째 남자 제자훈련반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저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며 진정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보았고 순종으로 받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었고 서로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감사와 평안으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자신의 손에서 직접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그래도 한 30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축할 때까지는 계속 제자훈련을 직접 인도하려고 한다. 그래야 향후 부교역자들이 제자훈련을 담당해 훈련시켜도 교회의 스피릿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락방은 영적 가정과 같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 길러진 순장들의 숫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한 순장들이 이끌어가는 다락방은 남자 다락방 16개, 여자 다락방 55개, 부부 다락방 47개, 여자 직장인 다락방 11개를 비롯해 130개를 헤아리고 있다. 순장들의 숫자에 비해 다락방 숫자가 적은 것은 부부 다락방으로 모일 경우, 부부가 함께 순장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지사랑의교회의 창립비전 중 하나가 '남성을 돕는 교회'이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남성들에게 역량을 집중했고, 등록심방도 남자 성도의 경우 여자 혼자 등록한 경우와는 달리 이 목사가 직접 갔다. 다락방 편성도 처음에는 남자 다락방, 여자 다락방을 구분해서 운영하다가 2004년부터는 4개 가정을 묶어 부부 다락방을 편성하기 시작했는데, 부부 다락방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남성들을 목회와 사역의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이 목사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다락방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출석성도 대비 최

이인호 목사는 개척 초기 1주일 내내 여제자반 2개, 남제자반 1개, 남여 사역반 각각 한 개씩을 맡아 훈련시켰다. 심방도 다니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온 제자훈련은 현재 남자는 8기째, 여자는 13기째 훈련이 진행 중이다.

대로 나올 때 67~68%이고, 보통 때는 55% 수준이지만, 부부 다락방의 경우에는 출석률이 9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 다락방이 성공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점점 맞벌이가 늘어나 낮에 모이는 여자 다락방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은 어려워지고, 남자 성도 혼자서 참여해야 하는 남자 다락방에 대한 헌신도도 낮아졌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부로 묶어 놓으니, 남편은 아내 때문에라도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도 함께 모이니까 온 가족이 재미있어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부부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윤현두 집사는 부부 다락방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남자들만 있을 때는 아내 흉도 보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부부 다락방으로 모이면 부부 간의 문제도 오픈해서 남편 흉도 같이 보고, 다른 부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듣고, 아이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부부가 함께 서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다락방 식구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에 등록한 후, 2010년 2월부터 부부 다락방에 출석하고 있는 유승현 집사, 신지은 성도 부부는 다락방 모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린 구역 예배는 약간 형식적이고 딱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모임은 믿음의 연륜을 떠나서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이겨나가야 할 부분들을 다락방 식구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도 목사님께는 차마 여쭤보지 못하는 것을 순장님께는 편안하게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순장님은 조그마한 일에도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같이 박수~' 하십니다.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다락방 순원이 보내주신 문자 한 통에 힘을 얻고, 잠시나마 다락방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떠올리며 바쁜 일상 중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낯설었던 다락방 모임이 어느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다락방이 작은 교회처럼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영적 가정으로서의 공동체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부부 다락방으로 모일 때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는 부인들이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 순장이 부인들만 따로 모아 정기적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부부 다락방의 순장은 순장 부부가 모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해야 파송이 된다. 부부로 모일 때는 남자 순장이 인도하지만, 부인들만 모일 때는 여자 순장이 돌보는 것이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남편과 부인들이 서로 나눠서 모이기도 하고, 주중에 따로 기도모임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제대로 훈련된 부부가 함께 순장으로 섬기기에 부부 다락방의 강점이 최대한 살아나고, 단점들이 발목잡지 못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남편이 다락방을 인도해가니까 부인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남자들이 사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

한 번 모이면 아이들까지 20명씩 모이는 곳도 있지만, 한 번 뭉치면 헤어지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 다락방의 특징이다.

공란희 집사는 자신이 경험한 다락방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다락방에서 고통과 상처,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면서 많은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깨달아가는 즐거움에 금요일을 사모했고, 서로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성숙해가는 나눔과 회복이 감사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과 삶의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요, 작은 교회인 다락방에서는 세상 모임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음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포장되고 감추어진 모습이 아니라 진심과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과 연약함을 서로 이해해주는 다락방이 참 좋았음을 기억합니다.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다락방을 통해서였고, 그래서 수지사랑의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다락방은 사역공동체이다

수지사랑의교회 다락방은 영적 가정으로서의 유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 공동체의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다락방과 사역을 연결한 것이다.

수지사랑의교회 순장은 다락방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사역의 리더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락방이 그런 살아있는 예배와 역동적인 사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지사랑의교회 다락방 안에는 다양한 사역리더들이 배정되어 있다. 전도리더, 선교리더, 중보기도리더, 농어촌 봉사리더, 이웃사랑리더 등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하나씩 사역리더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다락방에 속한 각각의 사역 리더들은 교회 차원의 각 사역팀에서 봉사자들을 훈련시킨다. 예를 들어, 각 다락방에 속한 이웃사랑 리더들 100여 명을 불러 이웃사랑 사역팀에서 교육시키고, 브리핑하고, 다락방에 가서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여름사역을 펼칠 때는 다락방에 속한 각각의 선교리더들을 다 모아 훈련시키고, 농어촌 선교, 해외 선교를 함께 갈 수 있도록 공지하고 다락방별로 헌신자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다락방 식구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 성장과 섬김과 사역에 열외되지 않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여름 통영선교를 다녀온 이병태 집사는 이렇게 간증한다.

"선교를 처음으로 실천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의사는 30%밖에 없었고 아내인 김형임 권사의 권유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

수지사랑의교회 다락방은 영적 가정으로서의 유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 공동체의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다락방과 사역을 연결한 것이다. 수지사랑의교회 순장은 다락방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사역의 리더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처음인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장 잘되는 몇 년'보다 '계속 잘되는 구조'로

아직 수지사랑의교회는 소년의 단계이다. 8년이라면 이미 장성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수지사랑의교회를 8년 동안 출석한 성도는 아직 몇 명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2~3년 정도 수지사랑의교회와 함께한 성도들이다.

한 사람이 훈련되고 성숙되어 쓸 만한 재목이 되려면 4~5년은 자라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역의 현장에서 연륜이 10년은 되어야 진국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계다가 이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수준 높은 사역과 섬김을 펼치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한 경험을 갖춘 목회자였다. 그러니 개척 교회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역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사랑의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와 개척을 하면서 기대치가 처음부터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잘했지만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기대를 내려놓는 과정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목사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어른의 수준을 요구하는 잔인한 요구를 내려놓고, 사역을 위임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사실 처음에는 이 목사도 위임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혼자서 다할 때보다 진도가 느리고 성과도 떨어졌다. 처음에는 코미디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훈련을 하는 것은 위임하기 위한 것이고, 부지런히 제자훈련 시키는 것은 수많은 성도를 혼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인데, 혼자서 짐을 다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이 목사는 체력이 강한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보가 있고, 주춤거림이 있더라도 과감히 위임하기 시작했다. 당장 잘되는 몇 년이 아니라 계속하여 잘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강지처를 감싸 안다

어느 교회든지 개척 초기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들과 교회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와 양육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난 이후에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들의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수지사랑의교회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초창기 멤버들과, 교회가 비교적 모양새를 갖추고 난 이후에 출석한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 문제는 뒤늦게 들어온 성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 들어온 성도들의 용량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 목사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장성한 어른의 수준을 요구하는 잔인한 요구를 내려놓고, 사역을 위임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사실 처음에는 이 목사도 위임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혼자서 다할 때보다 진도가 느리고 성과도 떨어졌다. 그러나 당장 잘되는 몇 년이 아니라 계속하여 잘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는 것이 위임하기 위한 것이고, 부지런히 제자훈련 시키는 것은 수많은 성도를 혼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인데, 혼자서 짐을 다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이 목사는 체력이 강한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보가 있고, 주춤거림이 있더라도 과감히 위임하기 시작했다. 당장 잘되는 몇 년이 아니라 계속하여 잘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멀고 험난할지라도 성도들과 부교역자들의 리더십 용량을 키우는 소중한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다.

당회원들의 교육에 계속 투자하고, 순장들에게도 투자하고, 교역자들에게도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시켰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 교회가 장로든, 순장이든, 부목사든 품어주고 기다리면 바뀌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교회 안에 형성되었다.

이인호 목사는 "수지사랑의교회는 인격적으로 기다려줄 줄 안다는 신뢰를 얻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을 느긋하게 갖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교회공동체가 어려움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고갈과 해갈

이렇게 목회의 열매를 보고 사역의 틀을 갖추기까지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는 사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어려울 만큼 훈련의 틀 속에 매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척 초기부터 매년 계속되는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해온 이 목사에게도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심리적 부담과 한계들을 계속 돌파해왔다고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밀어붙여왔다고나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의 경우에는 4부 예배까지 드리고, 당회하고, 제자훈련을 한 반 인도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또 10~11시 정도까지 사역훈련 한 반을 인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역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고 들어올 때는 영적 고갈을 경험하기 쉬운 것이 제자훈련 목회자의 현실이다.

이 목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인 해갈을 맛보며, 영혼의 환희가 있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올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은 "제자훈련"이었다. 이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제가 주일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예배와 훈련에 매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제자훈련 하면서 에너지를 받아오나 봐요!' 물론 저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어요. 그러나 제자훈련하면서 성도들과 허물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맞추어가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위기는 새성전 입당 이후부터

수지사랑의교회는 현재 예배당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1.2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조성되는 광교 신도시 내 종교부지 720평을 불하받아,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다. 이미 1,700석의 본당을 포함한 연건평 3,700평의 예배당 설계가 끝났고, 3월말에 기공예배를 드리고, 4월초에 착공하여, 2012년 연말에 입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광교 신도시로 수원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법조타운 앞에 수지사랑의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적어도 지금까지는 건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종교부지를 불하받을 때 약 60억 원의 건축헌금이 작정되어, 절반 정도 헌금이 된 상태이다. 전체 공사비는 2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목사는 수지사랑의교회의 진짜 위기는 건축이 마무리되고 입당한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위기는 건축 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열악한 예배당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과 훈련

"제가 진짜 펼치고 싶은 사역은 교회 안의 남성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학원선교, 직장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을 길러내 허물어져가는 학원을 복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직장선교를 통해서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의 순수성을 유지해주는 보호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수지사랑의교회 성도가 되는데 좁은 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온 순수하고 열정 있는 성도들이 또 다시 좁은 제자훈련의 관문을 통과해 강도 높게 훈련받기 때문에 스피릿을 같이하는 핵심지도자 그룹이 유지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그냥 와서 눌러앉으려는 사람들, 허수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곧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치열한 입당 준비

그래서 이 목사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비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잘 훈련된 리더 한 사람이 천 명의 성도들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지사랑의교회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강하게 훈련시켜왔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교회에 등록하면 완전히 고생하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느껴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시설이 환경적으로도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3월말 기공예배를 앞둔 올해 1월에 '섬김이 비전기도회'를 가졌다. 섬김이 비전기도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한 번씩 가져왔던 수지사랑의교회의 연례 수련회였다. 연초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사역을 계획하고, 7월에는 상반기 사역을 돌아보고 하반기 사역을 정리하는 하프타임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수지사랑의교회의 골간을 유지하는 지도자 수련회이다.

올해 연초에도 350명에 달하는 섬김이들이 비전기도회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이인호 목사는 올해 7월에 있을 비전기도회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겠다고 선포했다. 새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할지, 수지사랑의교회가 붙들었으면 하는 비전과 방향과 사역에 대해서 순장들과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비전 만들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7월 비전기도회 이전에 미리 다락방에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순장들이 다 같이 비전기도회로 모여 전 성도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 비전을 만들고,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비전 준비팀' 에서 세분화, 구체화된 비전팀과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것을 기초로 내년 초에 미리 교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바뀐 조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미리 1년 동안 준비해서 새성전으로 입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예배당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시스템도 예배당 입당에 맞춰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꿈꾸는 더 밝은 미래

이 목사는 올해 우리 나이로 50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서둘러 불러가지 않으신다면 은퇴할 시점까지 20년의 목회 기간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목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20년 이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50대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물어보았다.

"원래 5년 동안은 공동체적 기초를 다지고,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비전의 토대를 세워서 10년 이후부터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5년째까지 공동체적 기초를 만들어가는 것은 잘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역의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건축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해 약간 지연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척 10년차가 되면 건축이 마무리되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왕성하게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목회의 전성기가 올 것이라 믿고 사역들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이 목사의 원래 비전은 직장선교, 학원선교, 세계선교였다. "제가 진짜 펼치고 싶은 사역은 교회 안의 남성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학원선교, 직장선교를 감당하는 일꾼을 길러내 허물어져가는 학원을 복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직장선교를 통해서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새로 조성되는 광교 신도시에 경기대와 아주대가 신축 성전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단국대, 강남대, 수원대가 인근에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들도 여럿 들어설 계획이다. 교회가 젊은이들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목사의 뚜렷한 목표였으나, 지금까지는 시설이 불비하고, 문화를 표출해낼 만큼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아 뜨거운 열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었다. 이제 건축과 함께 그 뜨거운 열정을 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광교에 삼성전자가 있고, 광교 신도시가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경기도청, 법원, 검찰청이 들어올 예정이며, 테크노 밸리가 조성되고 나면, 전철이 뚫려 강남까지 30분, 교회에서 전철까지 5분이 걸리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면 수원을 중심으로 한 광역 수도권 내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심방도 가고, 직장선교를 책임질 사역자도 세워서 직장선교를 제대로 감당해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남자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계속 직장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해왔고, 수지사랑의교회 소명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직장선교의 비전을 계속 나누어왔다.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계선교에 까지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수지사랑의교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꾼들을 길러왔다. 더딘 것 같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사업과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묵묵히 사람을 길러온 것은 결국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세계를 정복하는 꿈과 비전을 자극하고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수지사랑의교회의 미래가 현재보다, 또 지난 8년여의 과정보다 더 밝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이유는 이런 외적인 건축이나 말로만 제시되는 비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목사에게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가 잠깐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한 내용 때문이었다.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거나, 건축이나 교회의 상황이 요구하는 것 말고,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일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8년간 아름답게 성장해온 수지사랑의교회가 앞으로도 쉼 없이 더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제자훈련 목회의 모델로 성장해가리라는 확신을 마음에 담고 글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이다. 〈박주성 목사〉